

“신당 창당과정 지켜본 뒤 거취 결정하겠다”

기초선거 무공천에 불출마 선언 잇따라

광주일보 '플뿌리 정치아카데미' 특강... 윤여준 인터뷰

민주당 새정치 의지 아직 의심스러워 “안철수, 사슴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 정치불신 깨는 구조적 개혁 이뤄져야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은 3일 “앞으로 신당 창당 과정과 민주당의 새정치 의지가 드러난 것을 보고 향후 거취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민주당이 새정치를 한다는 데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의장이 이날 오후 서울에서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밝힌지 했지만, 향후 신당 창당 과정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창당 과정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윤 의장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말하는 새정치가 뭔지 모르겠다”며 “처음부터 실망했다. 새정치를 한다면서 민주당의 신당 창당준비단을 도리적 흠이 있는 인물로 내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에 대해 서운함의 표시와 조언도 함께 했다.

“그동안 새정치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 죄송할 뿐”이라며 “김한길 대표와의 신당 창당 합의의 뒤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 서운

하기 보다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어찌구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성급하게 결정한 만큼 (신당 창당 과정에)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장은 “안 의원이 좋은 마음으로 신당 창당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선 호랑이를 잡으려 호랑이굴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표현은 전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게 맞다”며 “사슴이 호랑이굴에 들어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에 대해 서운함의 표시와 조언도 함께 했다.

“그동안 새정치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 죄송할 뿐”이라며 “김한길 대표와의 신당 창당 합의의 뒤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 서운

방법인데, 벌써 민주당은 못하겠다고 나온다”며 “당 해산을 못하겠다는 것인데, 당 대 당 통합 모양새로 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쪽은 합의한 대로 ‘제3지대 창당’에 완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당 창당 과정까지 양측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신당이 창당될 경우 경선 물에 대해서는 “경선은 일반 원칙이다. 경쟁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양당이 합치면 반드시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장은 신당의 새정치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당 혁신 보다는 더 근본적인 과제가 있다.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틀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불신을 깨는 구조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거취 문제를 고민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 만든 당에 역할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당 자체 등 조직 형태가 정해지는 것을 봐서 안 의원과 (거취 문제)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의 새정치가 소중하게 가지고 생각돼 그 불씨가 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안 의원과 함께 해온 것”이라며 “안 의원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내 소임도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거대 야당과 새정치를 한다는 데...”라고 애원을 남겼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주최 '플뿌리 정치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선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공동위원장이 통합 신당의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병완 가세 ... 신당 광주시장 경선 '4파전'

설훈·김효석 등 신당 창당추진단 6명 선임

무소속으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일 신당 참여의 뜻을 밝히면서 신당 광주시장 경선이 '4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이사장은 3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출마기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 신당에 주체적으로 합류하겠다”고 밝혀 향후 신당 광주시장 경선에 참여를 시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두 당의 합당을 통해 제3지대 신당 창설에 합의한 것을 전폭 지지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단일야당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주장과

부합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신당 광주시장 경선에는 현재 유력 광주시장 후보군인 강준태, 광주시장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 새정치연합 측의 윤정환 공동위원장, 무소속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4파전'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은 “신당의 앞으로 과제는 ‘도로 민주당’을 피해야 하고 얼마나 혁신적인 콘텐츠를 갖느냐 하는 것”이라며 “혁신을 뒷받침할 신선훈 인물을 얼마나 많이 영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 선출 방식은 가장 혁신적인 틀로, 시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게 수렴해야 할 것”

이라며 “정파적 진영논리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시장 등 현역 초선 광역단체장 가운데 광주처럼 초임시장인 혼들이는 곳이 있느냐”면서 “그 원인이 민주당이나 시정에서 있을 수 있으며, 그 수준이 임계점에 와 있다고 본다”고 민주당과 강 시장을 겨냥했다.

그는 “모든 정파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수생’의 각오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광주는 앞으로 신당 성패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3일 정부 기획단 회의와 신당추진단 회의를 잇따라 여는 등 신당 창당 논의를 본격화했다.

양측은 우선 창당 과정에서 총무·조직·홍보·기획 등의 실무를 전담할 단체에 배치함으로써 창당 과정에서의 가교 역할을 맡겼다.

양측 정무기획단도 전날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양측 지도부 일정과 공식 메시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5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동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일단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反 현역단체장 연대 ... 후보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단체장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광주·전남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기초선거 무공천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무공천이 이뤄질 경우 현역 단체장이나 인지도가 높은 출마예정자들이 유리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면서 양측 출마예정자들의 출마 포기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역 단체장을 꺾기 위해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반(反) 현역단체장 연대를 위한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향후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구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예초 이번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출마 의지를 보였던 민주당 소속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이날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포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환영한다”면서 “평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기초단체장 선거 무공천 때 북구청장에 불출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며 출마포기를 선언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광주시의원 출마로 다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남 모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해왔던 전남도의회 A의원도 출마를 포기하고 전남도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A 의원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공천을 폐지하면 그동안 경선을 준비해왔던 입지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이 때문에 당원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광주지역 모 기초단체장 일

기초의원 후보등록 썰렁 ... 의원 정수 광주 68·전남 243명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함에 따라 광주 구의원과 전남지역 일선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도 당달아 환란을 겪으면서 지수, 순천, 나주, 광양 시의회 예비후보 개리고 있다. 신당 창당과 무공천에 따른 선거 구도 변화 등 변수가 많아 후보간 눈치보기가 심해 대부분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미루고 있다.

3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기초의회 예비후보 등록은 5명에 그쳤다. 2명의 현역 의원

을 제외하면 정치 신인은 3명 뿐이며, 민주당 의원들의 등록도 저조해 단 2명만이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시의회 예비후보로 27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중 민주당 14명, 무소속 11명, 통합진보당 2명이었고 이중 현역 의원은 5명이었다.

한편 광주시의 의원 정수는 68명이며, 전남 22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243명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리치투어 광산구 월계동첨단10여위 1층	062)431-0102
가람여행사 남구 봉선동 이마트 2층	062)653-5230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무인출발 상품

[CBPF01-024] 북경 4일 420,000원~	[CBPF01-025] 북경 5일 470,000원~
---	---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행되세요!

끝없이 펼쳐지는 산수 절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게임

2014년 04월 09일 ~ 2014년 6월 04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캐주얼] 이강유람*관안동굴
게임/양식 4일 499,000원~

●호텔: 4성급 호텔
●특징: 이강유람, 관안동굴, 사계제사장, 세외도원
●특식: 삼겹살 부채, 토란면 정식

●호텔: 4성급 호텔
●특징: 인삼유정지 [US\$ 45 상당], 발다사지 [US\$ 55 상당]
●특식: 삼겹살 부채, 토란면 정식

[캐주얼] 인삼유정지* 발다사지
게임/양식 4일 699,000원~

●호텔: 4성급 호텔
●특징: 인삼유정지 [US\$ 45 상당], 발다사지 [US\$ 55 상당]
●특식: 삼겹살 부채, 토란면 정식

●호텔: 4성급 호텔
●특징: 인삼유정지 [US\$ 45 상당], 발다사지 [US\$ 55 상당]
●특식: 삼겹살 부채, 토란면 정식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서비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있는 최고의 여행지
●중국 내 위치한 클럽메드 중 시군 구별 없이 인증 운영하는 최 리조트
●현대 조카 공원과 더불어 뛰어난 산수 절경, 녹음이 푸르른 카르스트 지형의 장관을 자랑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명소
●현대 조카공원이 곳곳 자리하고 있는 리조트이자 전체의 자연 환경과 이강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리조트

[CSPF01-CZC] 게임 4일 1,099,000원~	[CSPF01-CZC] 게임 5일 1,399,000원~
--	--

히니무너를 위한 지역별 BEST NO.1 상품

[ABW179-888] 아우버민 타이베라 [골프기념여행] 푸켓 6일	599,000원~	●출발일: 3월·토/일/월요일 ●특징: 관아민관광, 피피섬관광, 사파리투어 (모카리트레킹 포함), 전통악기 2시간 체험
[ABW103-866] 빈안트리 풀빌라 (리조트호텔빌라 숙박)	1,500,000원~	●출발일: 3월·토/일/월요일 ●특징: 히니무너(메이&보스)번, 총아프 300프, 아타에서 제형(전통악기, 요양사지, 발사지 등)
[PW19-222/22/99/L/22/99] 세부 5일	879,000원~	●출발일: 3월·일/월요일 ●특징: 초특가왕인 무료왕양골(디럭스오션뷰), 스노우화양+호텔, 캐리어보증
[HWW215-HA0] 마우이+아오후 7일	1,740,000원~	●출발일: 3월·토/일/월요일 ●특징: 왕궁(그레이트시티뷰+오션뷰), 맨지 레스토랑 식사 포함, 프리미엄 아틀란티드 호텔 푸어
[PAW402-02B] 노보텔 달링허버 시드니 6일	1,850,000원~	●출발일: 3월·토/일/월요일 ●특징: 코랄 퀘스트, 호아카베라 중점, 2일차왕양

여행상품 가격표판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에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의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로구장) ■관광광선신고 Tel 1577-1233-1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속속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